대전환, 찾아가는 불교

찾아가는 '컨택트' 불교

찾아가서 고치고 나누며 '대중 속으로'

노덕현 · 하성미 기자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불자들의 사찰 방문이 급감한 현재, 적극적인 포교 전법과 사회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예로부터 불교는 전법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은 이른바 '불교'라는 굴레를 벗고, 대중들 속에서 불교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자연스럽게 전법행을 하는 것이란 점이다. 코로나 시기를 맞아 오프라인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딛고 활동하는 이들이 있다.


베지나랑에서 활동하는 불자들이 채식문화보급을 통해 불교를 알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조계사 가가호호 포근한 우리집 봉사자들이 어르신과 화이팅하고 있다.


시민들이 불교합창 아카데미에서 찬불가를 배우고 있다.


서울지역단 염불포교팀이 무연고자 염불불사를 하는 모습.

염불봉사

코로나19로 장례식장에 가기조차 두려운 시기, 소외된 이웃을 위해 묵묵히 염불봉사를 하는 불자들은 보다 특별한 감동을 전한다. 불교신자가 아니어도 요청이 오면 한걸음에 달려가 마지막 배웅을 하는 이들은 포교사단 서울지역단 염불포교팀이다.

이들은 코로나가 심각한 올해에도 매주 주말이면 서울시립 벽제 승화원을 찾아 불교식 장례가 필요한 무연고자 등에게 염불봉사를 하고 있다. 염불포교팀이 최초로 결성된 것은 2014년. 인천경기지역단과 분단되기 전 염불포교팀이 있었지만 분단되며 잠시 활동이 멈췄고, 다시 활동하자는 의견이 모아져 창설됐다.

코로나 희생자 염불봉사
지역 가정 '집수리' 진행

한달에 한차례 가량 현장포교를 진행하는 다른 팀과 달리 언제 요청이 들어올지 모르는 염불포교는 상시로 운영된다. 서울지역단 염불포교팀은 현재 17명 규모로 주중 3~4명이, 주말에는 11명 가량이 활동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장례식장 방문이 어렵지만, 시립승화원 등에는 또 다른 요청이 밀려온다.

장희자 염불포교팀장은 "최근에는 상주분들이 요청을 하셔도 장례식장 측에서 봉사자들을 받는 것을 거절한다. 개방된 시립승화원에는 무연고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의 극락왕생을 빌고 있다"며 "코로나 감염의 두려움도 있지만 저희마저 외면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마스크도 두 개씩 겹쳐 쓰면서 봉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염불포교팀은 팀원 절반 이상이 직장인이다. 생업 현장에서 일하다 쉬는 주말, 장례식장에서 봉사를 하지만 이들은 이런 봉사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수행이라고 입을 모은다.

장희자 팀장은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은 이들이 불교로 개종하는 사례가 많다"며 "우시면서 명함을 요청해서 받아가시고, 나중에 연락이 온다"고 말했다. 장 팀장은 "팀원들이 적게는 1시간, 많게는 5시간씩 주말마다 왕복하고, 식사 등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면서까지 계속 봉사하는 이유는 불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게 웃었다.

가정수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중에도,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자비를 나누는 이들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되찾아주는 요소다.

조계사 신도들이 2018년 구성한 행복나눔 가피봉사단은 200여 신도들이 활발한 사회참여, 기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중 집수리봉사팀의 '가가호호 포근한 우리집' 집수리봉사는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 청결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피봉사단의 대표적인 봉사활동으로 자리잡고 있다.

집수리봉사팀은 2018년 이후 종로 관내의 취약가구 20여 곳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왔다. 단순히 도배나 장판교체만 해주는 것이 아니다. 변기나 싱크대, 방충망 등 상태가 좋지 않은 곳은 모두 바꾼다.

특히 집수리 봉사에는 스님들도 참여한다. 작업복을 입고 승속이 봉사를 하면 그 순간 만큼은 모두가 한마음이다.

가피봉사단 집수리봉사팀은 올해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연말까지 30여 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봉사를 펼칠 예정이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4월 15일에는 3명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집수리봉사팀이 종로구 창신동 김 모 어르신댁의 변기와 방충망을 교체하기도 했다.

방문을 받은 이들은 집이 고쳐지는 것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따뜻한 자비온기를 함께 느끼게 된 것이 삶의 원동력이 됐다고 말한다.

가피봉사단 방문을 받은 이 모 할머니는 "미안하기도 하면서 고맙다.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들여다 봐 주니 자식과도 다름이 없다"며 "조계사에도 틈틈이 나가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주 조계사 행복나눔가피봉사단장은 "지역사회와 호흡하고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것이 불자들의 역할이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음악전법

소리부터 트로트 열풍까지 2019년과 2020년 우리나라는 음악으로 하나가 됐다. 이런 시대 흐름을 맞아 불교계도 음악을 비롯한 문화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2015년 설립된 불교계 대표 불교음악 전승기관 불교음악원(원장 박범훈)은 봉은국악합주단, 불교합창아카데미, 불음꽃합창단 등으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이중 일반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창구는 바로 불교합창아카데미다.

매주 수요일 서울 봉은사에서 진행되는 합창교육은 '붓다', '보현행원송' 등의 찬불가를 작곡한 박범훈 불교음악원장(동국대 석좌교수)을 비롯해 前 국립창극단 예술감독인 김성녀 불음합창단 예술감독이 찬불가와 연기지도를 진행한다. 여기에 창작찬불가는 박천지 봉은국악합주단 지휘자와 작곡가들이 직접 지도한다.

불교합창아카데미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찬불가 뿐만이 아니다. 국악풍의 곡은 국악계의 스타 박애리, 최수정 선생이 지도하고, 뮤지컬은 뮤지컬협회 이사장인 유희성 서울예술단 단장, 그리고 한국무용은 불교음악원 무용지도위원인 강미숙 선생이 담당한다. 한국무용과 스포츠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도가 병행돼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1기 42명, 2기 24명, 3기 16명이 졸업했으며, 4기 30여 명이 등록해 수업을 듣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단순히 불교음악교육을 받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교육이수생들은 불음꽃합창단으로 구성돼 활동한다. 각종 법회에서 찬불가 합창을 할 뿐만 아니라 수요일이면 봉은사 일대에서 합창 공연도 선보인다.

이 같은 열정은 5월 16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열린 무문보이스 합창제로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3기와 4기 불교합창아카데미 졸업생 및 수강생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참여해 다양한 찬불가를 선보였다.

박범훈 불교음악원장은 불교음악 대중화를 통해 문화전법포교의 새 장을 열 수 있을 것이라며 사찰 측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1970 · 1980년대 등장한 새로운 찬불가는 우리 불교문화를 풍성하게 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현재 불교계 의식과 행사 등에서 보여지는 불교합창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문적인 합창을 통해서 이를 보는 불자들과 일반인들의 환희를 자아내고 또 다른 불교포교의 장을 열 수 있습니다."

채식보급

불교 채식문화 확산을 통해 그 밑바탕에 깔린 불교의 생명존중 사상과 탐식에 대한 절제를 알리고 있는 식당이 있다. 사단법인 행복한마을(이사장 은산)이 운영하는 베지나랑이다.

베지나랑은 말 그대로 사찰 공양간처럼 수행을 위한 음식을 만드는 곳이며 음식을 통해 깨달음에 가까이 가도록 돕는 곳이다.

베지나랑은 2020년 거창 행복한마을 공동체가 설립되면서 시민을 위한 채식당 개념으로 운영이 시작됐다. 해인사, 통도사 등 지역사찰을 찾아 새로운 채식단을 선보이고, 지역사회에서 채식전문가 양성을 위한 강좌도 개최하는 등 활발한 채식문화 전법을 선보이고 있다.

시민 불교음악체험 제공
채식 배달서비스도 선뵈

시민들의 반응도 좋다. 베지나랑을 즐겨 찾는 김호경 씨(54)는 "사찰 수행 음식을 모든 일반인들이 맛있게 그리고 특별하게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채식을 즐기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를 데리고 가 소개해도 반응이 좋아서 채식하는 저에겐 오아시스 같은 만남의 장소이다. 자연스럽게 불교에 대한 관심도 생긴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호응을 바탕으로 베지나랑은 최근 무오신채 채식푸드 배달 서비스 '베지나랑 공양간(물류센터)' 도 추진 중이다. 베지나랑 공양간은 전국 비건 채식자들과 채식을 시작해보려는 많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베지나랑 공양간은 매주 화요일 채이장, 연잎밥, 콩까스, 모링가 두부 등을 집으로 배송하고 있다. '베지나랑 공양간'을 검색하면 배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도 곧 문을 열 예정이다.

허재영 베지나랑 공양간 총괄은 "생명을 위한 음식, 깨달음을 위한 음식을 전국 모든 이들에게 공양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기2565(2021)년
부처님오신날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꿈이 이루어지는
낙산사

낙산사 대중일동

무산사(양양포교당)
낙산유치원 / 강원파라미타청소년협회 / 낙산사 템플스테이
낙산사 불교대학 / 낙산사 불자마을(용호리, 낙산, 사천리, 손양면)

무산복지재단
낙산요양원 / 노인복지센터 / 양양군노인복지관 / 의상도서관
무산지역아동센터 / 1318무산지역아동센터
양양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 100
Tel 033)672-2447~8 www.nsksansa.or.kr